

주일가정예배

[종교개혁주일]

2022년 10월 30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롬1:17)

역사와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505년 전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개혁의 물꼬를 튼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 개혁자들을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삶을 깨우쳐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마음을 돌이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5장 다같이

1.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참 기쁘고 복 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3. 새 사람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후렴)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 멘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빌립보서 2:12-13 인도자

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설 교 『 너희 구원을 이루라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말씀과 찬송, 은혜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3. 거룩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날로 성장케 하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12-13

찰스 핫지(1797-1878)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잇는 정통 칼빈주의자다.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북 아일랜드 이민자의 아들로 출생했다. 그는 칼빈주의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주의는 관점의 차이일 뿐 서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라고 했다. 바울과 야보고가 강조한 것은 궁극적으로 일치된다는 확신이 있었다. ▶ 찰스 하지는 빌 2:12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설교를 두 번 했다. 우리가 달성할 목표는 구원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권세자로 지혜자로 인기인으로 행복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구원은 사죄, 성화, 영생을 포함한다. 하지는 칭의(稱義)와 성화(聖化)는 구분된다고 했다.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의 관계다. 칭의가 성화를 보증한다. 칭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성화를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에 순종하므로 성화에 이른다. 순종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다. 그 기쁨의 순종은 행위 즉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 즉 구원은 행위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셨다 하여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칭의의 좁은 길만이 아니라 성화의 좁은 길로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따라서 열심을 내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그 땅을 확정적으로 주셨지만, 그곳으로 나아가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다.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구원을 우리의 선행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자연종교나 금욕주의 또는 광신주의가 아니라, 복음에 일치하게 발휘되어야 한다. ▶ 이런 노력(행위, 순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힘써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동역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된다.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한다. "더욱 올바른 경외심과 책임감을 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구원을 완성하십시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대리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대리행위의 실례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실로암에 가서 씻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 권고받은 자는 복음, 규정된 은혜의 방편, 계명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으로서 은혜의 방편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을 부단히 사용해야 한다.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한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원은 쉬운 역사가 아니다. 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결같이 성실하고 진지한 욕망, 잠시라도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실패한다는 의식, 성화 과정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행하신다.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한다. 전능하신 보혜사가 우리를 지도하신다.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참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구원 사역에서 양자의 관계는 불가결한 것이다.